

제35회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고문헌강좌 일정

□ 개 요

- 주 제 : 서울 5대 궁궐의 역사와 문학
- 강 사 : 김경식(국제PEN한국본부 사무총장)
- 일 시 : 8. 23.(금) 14:00~16:00
-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지하3층 대회의실
- 참가대상 : 일반인 및 대학생 등 ※ 선착순 100명
- 참가방법
 - 2019. 8. 14.(수) 09:00 ~ 8. 22.(목) 18:00
 -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
 - ‘공지공고’란 [행사안내]로 공고 및 온라인 접수
 - 전화문의: 고문헌과(02-590-0505)
 - ※ 참가비는 없음

□ 프로그램 진행

시 간	진행 순서	비 고
13:30 ~ 14:00	강연 준비 및 접수	
14:00 ~ 14:05	강사 소개 및 강연 안내	사회 : 이기봉 학예사
14:05 ~ 15:50	강연 : 김경식 사무총장 교수	
15:50 ~ 16:00	질의 및 응답	

불 입 : 강사 및 강연 소개

(불 입)

강사 및 강연 소개

□ 김경식(시인/기행작가, 국제PEN한국본부 사무총장)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 경력 : 한국시문학연구소 소장 (역임)
한국고서연구회 부회장(현)
국립한국문학관 이사(현)
문체부문학진흥정책위원(현)
국제PEN한국본부 상근 사무총장(현)
- 시집 : 『새벽길 떠나며』(1998) / 『논둑길 걸으며』(2001)
『괴산에서』(2002) / 『한국대표현역시인육필시집』(2002, 편)
- 기행 : 『사색의향기문학기행』(2009) / 『서울문학지도1』2014년
『서울문학지도2』(2015) / 『서울문학지도2』(2016)
- ※ 학교 및 단체 ‘역사와문학기행’ 500회 이상 진행

역사와 문학은 자유와 사랑을 위해 많은 장애물을 넘나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라와 민족마다 자신들의 역사와 문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민족에게나 이런 역사와 문학은 존재한다. 작가는 문학작품 어딘가에 자신이 살았던 당대의 자연과 사람들의 모습을 담는다. 그러나 작가가 태어난 장소에 이미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서울은 초기 백제와 조선의 도읍지였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수도다. 숭한 침략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변모했다. 그러므로 서울은 역사와 문학의 보고다. 서울에 삶의 토대를 두지 않은 역사적인 인물과 문인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은 다양한 전쟁과 개발로 인해 역사적인 건축물과 인물들의 흔적들은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서울에 남아 있는 조선의 궁궐들은 고증을 받아 계속해서 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당시의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이번 강의는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서울의 5대 궁궐의 역사와 문학을 통해 당시 시대와 왕들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활을 이해하면서 청중들의 인문학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조선왕조를 창업한 태조 이성계가 한양 천도를 결정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궁궐을 신축하는 일이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풍수를 지니고 있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의 역사와 문학의 궤적을 요약하여 쉽게 풀이한다.